

시바 료타로(司馬遼太郎)의

메이지(明治)국가론

— 『언덕위의 구름(坂の上の雲)』의 역사서술방법을
중심으로 —

이 복 임*

(e-mail : danan01@hanmail.net)

目 次

1. 머리말
 2. 에도기(江戸期)의 합리주의
 3. 센고쿠기(戦国期)의 진취주의
 4. 국민국가 메이지, 천황국가 쇼와
 5. 국민국가관에서 평화관으로
 6. 맺음말
-

1. 머리말

일본의 1920년대에 진행되었던 다이쇼(大正)데모크라시가 30년대 등장한 군국주의 세력으로 인해 쇠퇴되고 이들에 의해 정권이 장악되었던 격동기속에서 태어나고 성장한 시바 료타로(司馬遼太郎;1923-96년, 이하 ‘시바’로 칭함)는 오사카(大阪)외국어대학시절 2차 대전이 발발하자 학도 출병하여 중군으로서 전쟁체험을 하게 된다. 이때의 경험 때문인지 그의 문학작품에는 쇼와기(昭和期, 1926-89)에 대한 발언이 극히 과격하게 표현되어 있다. 특히 쇼와시대의 국가에 대해서는 ‘군벌(軍閥)에게 이 나라를 점령당한 쇼와10년 전후의 국가라는 것은, 저것이 국가 이었나하고 의심할 정도로 엉망진창이었다.’라는 표현을 하

* 한남대학교 강사, 일본근현대문학 전공

고 있고, 군벌에 대해서는 ‘집단적 정치 발광자’라고 할 정도로 극단적인 발언을 하고 있다¹⁾. 하지만 메이지기(明治期, 1868-1912)에 대해서는 리얼리즘의 시대라고 하는 등 상당히 긍정적이다²⁾. 이러한 시바의 상반된 언설에 대해 나카무라 마사노리(中村政則)는 단순한 ‘이항대립사관’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후쿠이 유조(福井雄三)는 일본이라는 국가의 틀에 시점이 한정되어 있는 ‘선악이 원론’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나리타 료이치(成田龍一)는 ‘시바는 1925년을 전후한 시대에 태어난 ‘전중파(戰中派)’로 전쟁 중에 형성된 심성을 가지고 근대일본 역사상을 그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³⁾. 시바 역시 청소년기에 전쟁체험을 한 쇼와기를 자신에게 있어서 천황은 공포의 대상이었고 즉창으로 적병을 찔러 죽여야 한다는 시대상황이 자신도 또한 죽는다는 존재로 인식되었던 시대였다고 밝히고 있다⁴⁾. 이러한 사고 속에서 시바는 항상 쇼와이전의 세계는 어떠했을까하는 의구심을 가졌었고 그 때문에 주로 메이지기와 전시대가 역사소설의 배경으로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⁵⁾.

시바의 중기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언덕위의 구름(坂の上の雲)』은 산케이신문(産経新聞)에 1968년부터 72년까지 약 5년에 걸쳐 연재된 장편역사소설이

- 1) 「軍閥にこの国を占領されてしまっていた昭和十年前後の国家というのは、あれが国家だったかとおもわれるほどにインチキくさい。…(太平洋戦争は)世界戦史に類のない国家的愚行、…こういう愚行ができるのは集団的政治発狂者以外にありうるだろうか。」(司馬遼太郎(1980)『歴史と視点』、新潮文庫, pp.19-21.)
- 2) 「메이지는 리얼리즘의 시대였다. (중략) 쇼와에는 쇼와20년까지이지만, 리얼리즘이 없었다. 좌우의 이데올로기가 충만하여 국가와 사회를 휘감고 있었던 시대였다.(明治は、リアリズムの時代でした。(中略) 昭和には一昭和二十年までですが一リアリズムがなかったのです。左右のイデオロギーが充満して国家や社会をふりまわっていた時代でした。)」(司馬遼太郎(1994)『明治という国家』(上), 日本放送出版協会, pp.7-8)
- 3) 「시바사관에는 아무런 문제는 없을까?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가장 큰 문제는 ‘밝은 메이지’와 ‘어두운 쇼와’라는 단순한 이항대립사관에 있다.(司馬史観には何も問題はないのか。そうではないと思う。最大の問題は‘明るい明治’と‘暗い昭和’という単純な二項対立史観にある。)」(中村政則(1997)『近現代史をどう見るか-司馬史観を問う』, 岩波書店, p.3)
「영광과 발전의 메이지에 비하여 암흑과 파괴의 쇼와라는 그만의 선악이원론의 구도가 단순화된 형태로 제시되고 있다고 봐도 좋을 것이다.(栄光と発展の明治に対する暗黒と破壊の昭和、という彼の得意の善悪二元論の構図が、単純化されたかたちで示されていると見てよいであろう。)」(福井雄三(2008)『司馬遼太郎の意外な歴史眼』、主婦の友社, p.53)
「1925년을前後する時期に生まれ、戦時期に10代を過ぎたこの世代は「戦中派」とくられるが、その戦中派の戦後における心性のひとつの潮流を、司馬は代表し描き出しているように思う。」(成田龍一(2003)『司馬遼太郎の幕末・明治』、朝日新聞社, p.308.)
- 4) 司馬遼太郎(1993)『この国のかたち』(二)、文芸春秋, p.115.
- 5) 실제로 시바는 1993년 문화공로상을 받은 기자회견석상에서 「어째서 일본인은 이런 멍텅구리가 되었을까? 도대체 누가 국가를 영광으로 만들어 이런 하잘 것 없는 민족으로 전락되었는지, 여기서부터 나의 소설은 시작되었다.(どうして日本人はこんな馬鹿になってしまったんだ、一体誰が国家をめっちゃくちゃにし、こんなつまらない民族にしまったのか、ここから私の小説は始まった)」라는 심정을 토로하였다. (中村政則(1997/9)「歴史家は司馬史観をどう見るか」『戦争責任研究』、日本の戦争責任資料センター、p.4.)

다. 메이지기를 중심으로 에도기(江戸期, 1603-1868)와 센고쿠기(戦国期, 1467-1573)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구체적으로 서술하면서 각 시대별 연속성에 대해 논하고 있다. 반면에 쇼와기에 대해서는 메이지기의 러일전쟁(1904) 이후에 행해졌던 전쟁(1931년 만주사변부터 1945년 패전까지)을 접목시키며 차별된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즉, 시바의 문체론적 특징 중의 하나인 이분법적 서술법⁶⁾으로 각 시대에 대한 주관적인 사고를 가미하며 메이지기에 대한 자신만의 명확한 국가론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 작품에 나타나고 있는 시바의 개성적인 역사서술방법인 이분법적 서술법을 중심으로 메이지기와 전후시기의 연속성과 차별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이전 시기는 에도기의 합리주의와 센고쿠기의 진취주의로 나누고, 이후 시기는 국민국가 메이지와 천황국가 쇼와기로 분류하여 각 시대별로 비교 또는 대립시키며 주장하고 있는 메이지의 국가론에 대해 규명하기로 한다. 나아가 이러한 자국중심의 역사관이 작품 후반부에서는 군사동맹을 비판하고 전쟁의 본질성을 거론하는 평화관이라는 역사관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시바사관이 변모되는 양상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2. 에도기(江戸期)의 합리주의

시바의 역사소설은 주로 메이지기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고 수많은 문학작품 속에서도 메이지에 대한 언급이 자주 거론되고 있으므로 시바는 메이지 예찬론자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메이지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선별하여 간추려보면, 첫째 ‘국가와 국민이 동질성을 실감하고 있었기 때문에 개인의 발전은 방기해 버린다는 욕구가 있었던 시대’(『歴史と視点』, 1980), 둘째 ‘개인적 안위보다 역사적 사명에 충실하고 물질적이 아닌 정신의 경건함이 살아있던 시대’(『この国のかたち』, 1990), 셋째 ‘메이지는 모방의 시대이고 과거의 흑설탕을 백설탕으로 만들기 시작한 시대’(『明治という国家』, 1994)라고 정리할 수 있다. 즉, 시바가 주장하는 메이지기는 국민국가의 시대, ‘충(忠)’을 강조하는 역사의식의 시대, 청렴에 의한 리얼리즘의 시대라고 할 수 있으며, 이 중에서 특히 메이지기가 국민국가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국가로 나아가게 된 이유가 그 이전의 시대부터 전수되어 수용된 일본적 고유

6) 필자의 「『언덕위의 구름(坂の上の雲)』에 나타난 이분법적 서술법 고찰」 『日本文化研究』, 第34輯, 2010년 4월, 동아시아일본학회. 참조

사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며 시대의 연속성을 주장하고 있다. 즉, 에도기와 센고쿠기의 무사시대와의 연관성이다. 시바는 또한 ‘사무라이 예찬론자’이기도 하여 메이지유신을 주도한 하급무사들의 정신이 메이지기 중간 관리자들에게 옮겨와서 러일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는 논리도 전개하고 있다⁷⁾. 본 작품에서도 시바는 줄곧 에도기의 사상에 대해서 메이지와 연결 짓고 있는데 다음의 인용문은 이러한 논리의 뒷받침을 하고 있다.

① 다만 러일전쟁당시 정치 전략의 최고지도자들은 30년 후 그런 무리와는 종족이 달랐다고 생각할 정도로 계산적인 합리주의사상은 조금도 들어있지 않았다. 이는 당시 40세 이상 일본인의 보편적 교양이었던 주자학이 대부분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주자학은 합리주의적인 입장에서 극도로 신비성을 배제한 사고법을 말하는 것으로 이런 사상이 에도중기부터 메이지중기까지 일본 지식인들 골수까지 스며들어 있었다.

(三, 砲火, 12-13)⁸⁾

여기서 거론하고 있는 ‘주자학(朱子學)’은 중국 송나라 때의 주희(朱熹)가 대성한 유학으로 이기(理氣)와 심성(心性)에 근거한 실천도덕과 인격 및 학문의 성취를 역설한 학문이다. 일본에서는 에도시대에 이 주자학을 관학으로 삼았다. 시바는 주자학의 영향으로 1868년 메이지유신의 성립에 한 몫을 담당하였고 ‘존왕양이(尊王攘夷)’라는 단순명쾌한 슬로건에 의해 국론이 통일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주자학이 메이지기로 이어져온 까닭에 교육면에서는 에도기에서 전수된 일본적인 주자학 이데올로기가 생겨났던 것이라고도 덧붙이고 있다⁹⁾. 이런 논리 하에 위의 인용문에서는 주자학이 메이지기인들의 보편적인 교양으로서 자리 잡게 되었고 전쟁 당시 지도자들의 ‘합리주의’ 사상으로 수용되어 신비성을 배제한 사고력으로 정착되었다고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어지는 문구를 보면 이 사상은 메이지기 중기까지 일본 지식인들에게 스며들었다고 하며 중기 이후에는 주자학으로 인한 합리주의 사상이 변질되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주자학은 한학(漢學)으로 송학(宋學)이라고 하고 이후에 성인의 도를 표방한다고 해서 도학(道學)이라고도 했다. 도학은 논리를 넘어서 종교적인 성격이 강하고 이른바 대의 명분교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 왕통을 따져 묻고 나아가서는 이민족을 비하하였다. 위 인용문에서 시

7) 앞의 책, 司馬遼太郎(1993) 『この国のかたち』(二), p.129.

8) 본 논문은 <司馬遼太郎(2005) 『坂の上の雲』(一)~(六), (株)文芸春秋(新装版).> 을 텍스트로 하며, 이하, 괄호 안에 (단행본 권수, 소제목, 페이지)순으로 표시. 한국어번역은 논문작성자에 의함.

9) 司馬遼太郎(1993) 『この国のかたち』(一), 文芸春秋, pp.31-33.

바는 메이지 중기 이후 30년(1930년대, 쇼와전기를 의미)에는 이러한 계산적인 합리주의사상이 농후해졌다고 하며, 메이지중기이후부터 서서히 에도기에서 수용된 사상과는 다른 쪽으로 나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여기서 계산적인 합리주의 사상이라는 것은 천황에게 직접재가를 얻는다고 하는 유약상소권(帷幄上訴權)을 빌미로 쇼와 군부는 통수권을 내세워 1945년 패전까지 국가를 전쟁으로 내몰아가는데 근본이 된 사상을 의미한다.

에도기에서 유입되었다고 하는 주자학의 합리주의 정신 외에 메이지기의 두 번째 사상으로 주장하는 ‘무사도 정신’에 대해서는 아래에 제시되는 두 문장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② 일본의 에도시대의 사학가나 서민이 구스노기 마사시게(楠木正成)나 요시쓰네(義経)를 좋아했기 때문에 그 전통이 줄곧 이어져 (중략) 러일전쟁기간을 통하여 늘 병력부족과 포탄부족으로 악전고투를 거듭했지만 그래도 정신적으로는 적과 동등한 숫자나 그 이상이라고 여겼다. 해군의 경우는 적보다도 수량과 질에 능가하려고 했고 실제로 능가했다. (三, 陸軍, 87-88)

③ 에도기의 무사를 감동시켰던 군담(軍談)은 모든 것이 적은 인원으로 대군을 막았다는가, 또는 격파했다는 기술적(奇術的)인 명장 담이었다. (중략)

그 행위의 목적이 승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장렬한 미에 있기 때문에 에도기 태평한 서민의 마음을 울렸던 것이다. 이런 정신은 쇼와기까지 이어진다. (五, 黄色い煙突, 17)

위의 인용문은 모두 러일전쟁 시 전술에 관한 것으로 공통점은 적보다 불리한 상황에서의 정신자세이다. ②에서 인용하고 있는 두 장수는 중세 가마쿠라 막부(鎌倉幕府, 1185-1333)와 남북조시대(1336-92)에 활약했던 인물로 에도기의 사학자나 서민들이 존경했던 대표적인 일본적 무사로 묘사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전통이란 ‘적은 인원으로 죽음을 불사하고 적장에 뛰어들었다’고 하는 무사들이 행했던 명장 담(名將談)¹⁰⁾으로 시바는 이러한 정신이 메이지기 군인들에게도 스며들어 강대국인 러시아와 맞설 수 있었다는 것으로 연결 짓

10) 미나모토노 요시쓰네(源義経;1159-89)는 중세초기의 작품 『헤이케모노가타리(平家物語)』에서도 다뤄졌던 인물로, 번뜻이는 천재성과 전쟁에서의 신들린 듯한 능력과 면밀한 연구와 합리성, 그리고 결단력을 최고의 장점으로 들고 있다. 구스노기 마사시게(楠木正成;?-1336)는 천황에 대한 충성심의 상징적 존재로서 ‘황국(皇國)사관’아래 전사할 것을 각오하고 의를 위해 목숨을 버리고 전쟁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군신의 거울’, ‘일본인의 거울’이라는 칭송을 얻어 일본 수신교육에 인용되기도 하였다. 시바는 이와 같은 두 장수의 명장담이 당시 사람들에게로 스며들어 고유한 민족성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고 있다. 특히 육군보다도 해군에게 이런 사상이 더 강했다고 덧붙이고 있는데, 이는 시바가 2차 대전 시 전쟁체험으로 육군에서의 참상을 실제로 목격했기 때문에 작품에서는 일본육군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하지만, 해군에 대해서는 그와 반대로 철저한 준비성과 자만하지 않는 신중함 등의 긍정적인 면을 묘사하며 ‘해군과 육군’의 차별성도 확연하게 나타내고 있다¹¹⁾.

위의 두 문장에서 거론하고 있는 무사정신이란 ‘사무라이 정신’을 말하는데 시바가 주장하는 바로는 ‘언제든지 필요하면 죽는다’와 ‘자율성에 의해 목숨을 걸고 끝까지 지킨다는 것으로 자신의 명예를 목숨을 걸고 지킨다’는 의미이다. 시바는 러일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요인도 바로 이 사무라이 정신에서 비롯된 것이고, 무사체도가 폐지된 메이지기에는 이 정신이 이상화되어 메이지정신으로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¹²⁾. 그리고 이러한 ‘무사도 정신’에 대해서도 당시 만연해 있던 ‘사회주의’와 비교하여 ‘무사도라는 것은 육체를 죽이고 인(仁)을 이루는 것이다. 사회주의는 평등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무사도는 자기를 희생하여 남을 돕는 것이므로 사회주의보다 한 단계 위인 것이다.’¹³⁾ 라고 표현함으로써 ‘무사도’의 사상을 추앙하는 민족주의적인 역사관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역사관은 아래의 문장과 같이 무사도 사상이 에도기부터 전수된 것이라는 확실한 묘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④ 이 시기(메이지기), 에도시대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무사도의 사상이 여전히 30대 이상의 사관들에게는 아직 남아있었기 때문에 일찍이 보지 못했던 적함대의 실패를 비웃는 경박함은 볼 수 없었다고 한다.

(四, 旅順總攻撃, 59)

러일전쟁 시 일본함대가 러시아함대의 접근을 막기 위해 중국의 여순(旅順, 요동반도의 최 남쪽에 있는 군항도시)항구를 봉쇄하고 있을 때 영국함대의 출현으로 러시아함대는 그 위세에 놀려 쫓겨 달아났다. 위 내용은 러시아함대가 본영으로 되돌아가는 도중에 영국어선을 보고 함대인줄 착각하고 습격했다는 당시 상황이야기이다. 이 사건으로 러시아가 국제문제를 야기 시켰다고 하는 보도를 듣고 상대의 불행을 비웃는 경박함은 러일전쟁 당시 군인들에게는 찾

11) 육군과 해군에 대한 비교문장은 「三, 遼陽, 230-231」, 「三, 旅順, 301」, 「四, 二〇三高地, 129」, 「五, 鎮海灣, 189」에서 확인할 수 있다.

12) 司馬遼太郎(1994) 『明治という国家』(下), 日本放送出版協會, p.117.

13) 「武士道というのは身を殺して仁をなすものである。社会主義は平等を愛するというのが、武士道は自分を犠牲にして人を助けるものであるから、社会主義より一段上である。」(六, 雨の坂, 450)

아볼 수 없었다고 묘사하고 있다. 그 이유가 바로 에도시대부터 유입되어온 무사도 정신 즉, 자신의 명예를 목숨보다 소중하게 한다는 것으로 스스로 높은 품격을 유지하고 상대를 존중한다는 의미로 인용하며 두 시대의 긍정적인 면에서의 연관성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시바는 에도기의 무사정신을 강조하면서도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는 주군에 대한 충성심 등이 왜곡되어 있는 면을 들추어 아래에 제시되는 ⑤의 인용문과 같이 다른 시점에서의 주관적인 논리를 첨가하고 있다. 시바는 이미 성장기에 전쟁의 실상을 경험한 때문인지 명령에 의해 힘없이 죽어간 수많은 병사들에 대한 언급도 가미하고 있다. 시바의 이러한 인간미에 대해 아오키 아키라(青木彰)는 시바사관의 특징 중의 하나로 ‘인간중심주의’라고 하면서, 애국심만을 부추겨 병사를 전쟁으로 몰고 간 쇼와기를 시바는 더욱 혐오하고 있다고 거론하고 있다. 또한 쇼와기에 국민국가를 내세우는 ‘공(公)’의 의미는 국가를 위해서 죽는 것이라고 강렬하게 비난하고 있다고 덧붙이고 있다¹⁴⁾. 아오키의 지적과 같이 시바는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 속에서 국가라는 이름 아래 희생된 하층민까지 바라볼 수 있는 따뜻한 시선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⑤ 도쿠가와(徳川) 3백년의 봉건제도에 의하여 배양된 주군에 대한 두려움과 순종하는 미덕이 메이지 30년대(1898)가 되어도 병사들 사이에 아직 남아 있었다. 명령은 절대적이었다. 그들은 한 가지밖에 모르는 것처럼 되풀이되는 동일 목표를 향한 공격명령에 묵묵히 따르며 거대한 살인기계 앞에서 단체로 한 다발이 되어 죽어갔다. (三, 旅順, 296)

이 문장에서 묘사되고 있는 메이지 30년대의 명령이란 청일·러일전쟁 시 병사들에게 내려진 천황의 명령이다. 시바는 메이지기 ‘충(忠)’으로 결집된 무사도 정신을 내세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와 같이 전쟁에 동원된 하층민의 입장도 헤아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언급한 ‘인간중심주의’사관도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발표된 김경호의 논문을 보면, 시바는 문학작품에서 메이지천황을 극찬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¹⁵⁾ 그렇지만은 옳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 인용문에서와 같이 메이지기에 병사에게 내린 명령을 ‘절대적’이라고 표현하는 것에서 천황의 명령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시바는 그의 수필집에서 일본국은 메이지 헌법에 명기된 ‘천황’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여 국민을 전쟁으로 내몰았고, 전쟁말기(2차 대전)에 ‘천황’은 공포의 대상이었다

14) 青木彰(2005) 『司馬遼太郎と三つの戦争』, 朝日新聞社, pp.130-131.

15) 김경호(2009/5) 「시바료타로(司馬遼太郎)문학의 천황(天皇)像」 『日語日文学研究』, 第69輯.

고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이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시바자신도 포함)은 천황제를 반대하는 사람이 많았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단정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¹⁶⁾. 나아가 ⑤의 문장에서 인용하고 있는 거대한 살인기계라는 표현도 인간에 대한 병기의 파괴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시바의 휴머니즘에 입각한 인도주의 역사관까지도 엿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에도기와 메이지기의 사상을 하나의 연결고리로 보는 시바의 역사관에 대해 시게마쓰 야스오(重松泰雄)는 에도기의 사상이 곧 주인공을 비롯하여 군부, 정계, 관계의 모든 지도자들에게 유입되어 일을 처리하는데 결단력으로 작용하였다고 하고 있다. 이어서 명확한 ‘신흥국가 시대의 일본인’의 능력과 견고한 제도와 감정에 의해 모든 것을 묵살하지 않는 인간과 시대의 공감과 찬미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¹⁷⁾.

즉, 시바는 에도기와 메이지기에 대한 연속성으로 예문①과 같이 에도기의 합리주의사상과, ②-④의 무사도정신을 예로 들고 있다. 그리고 이 일본적 사상이 메이지기에 결집되어 리얼리즘 속의 국민국가를 형성할 수 있었다는 논리를 가미하고 있다. 그러나 ⑤의 예문을 보면 병사들의 죽음에 대한 언급으로 자신이 경험한 전쟁의 참상을 회고하며 전 시대에서 전수된 고유의 사상이 쇼와기에는 왜곡되어 병사들의 희생만을 강요했다는 지적으로 인간중시를 나타내는 역사관을 보이고 있다.

3. 센고쿠기(戰国期)의 진취주의

이렇듯 시바는 에도기에 형성되었던 합리주의와 무사정신이라는 사상들이 메이지기로 유입되어 왔다고 주장하는 외에 더 이전시기인 일본역사상 가장 전란(戰亂)의 시대였던 센고쿠기인들의 사상까지도 덧붙여 설명하고 있다. 왜냐하면 한 시대의 사상이라는 것은 오랜 기간을 걸쳐 답습되고 수용되어서 비로써 확립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바는 수용된 사상이 아닌 시대적 배경 속에서 국민들이 갖게 되는 인식의 차이에 대해서도 이분법적인 서술방법으로 명확한 묘사를 하고 있다. 아래의 인용문은 여기에 관한 내용으로 이 이야기는 러일전쟁 시 최고의 격전지였던 203고지¹⁸⁾에서 고군분투하는 일본군을 보고 한 외국인 기자가 ‘일본인에게는 강철 같은 의지가 있었다’고 보도했다는

16) 앞의 책, 司馬遼太郎(1993) 『この国のかたち』(二), p.114.

17) 重松泰雄(1975/3) 「司馬遼太郎における<明治>」 『国文学 解析と教材の研究』, 学灯社, p.158.

18) 203고지는 중국동부 요동반도(遼東半島)남단에 위치한 여순(旅順)에 있는 구렁이다. 러일전쟁 시 러시아해군의 기지였던 여순 항을 둘러싸고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격전지였다.

내용과 함께 계속되는 문장이다.

① 일본 센고쿠기 전쟁을 말하면 보병에 이르기까지 군인은 직업인이었다. 그러나 자유롭게 그 직업을 하지 않아도 되었다. 더 자유로웠던 것은 자신들의 주군이 무능할 경우 그 지배 하에서 언제라도 벗어날 수 있었다. (중략) 메이지국가는 일본서민이 국가라는 것에 처음으로 참가할 수 있었던 집단적 감동의 시대였고 국가가 강렬한 종교적 대상이었다. 203고지에서 일본군 병사가 경탄할만한 용감함의 밑바닥에는 이러한 역사적 정신과 사정이 깃들여져 있었다. (四, 二〇三高地, 122-123)

일본의 센고쿠 시대란 1467년부터 1573년까지 약 100여 년 동안의 시대를 말하는데, 이때의 병사는 모두 직업적인 것이었다고 시바는 인용문에서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따르는 주군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라도 그만둘 수 있는 자유로움이 있었다고 하지만, 메이지 기에는 근대적인 국민국가가 성립되면서 서민들은 국가의 일원이라는 심리적 영향으로 국가에 대한 애국심이 형성되었다고 덧붙이고 있다. 이 시대의 ‘국가’라는 것은 봉건적 국가인 메이지 이전시대의 서민들은 전혀 느껴보지 못했던 것으로 처음으로 경험하는 메이지기인들을 흥분시키기에 충분했었고 이런 국민적 흥분이 절정에 달했던 것이 바로 전쟁이었다고 해석되고 있다¹⁹⁾. 시바는 또한 국가가 ‘강렬한 종교적 대상’으로 되었다는 표현으로 마치 종교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순교자라도 된 듯한 느낌을 이 시대의 국민들은 가지고 있었다는 의미로 인용하고 있다. 그리고 러일전쟁에는 이러한 정신과 사상으로 무장된 일본병사의 용감함이 있었다고 연결 짓고 있다. 나아가 메이지군인에게서는 국민국가라는 인식하에 전쟁에 앞서 국가의 위기를 구한다는 사명감이 깊이 박혀있었다는 반면에 센고쿠기는 직업군인이라는 인식 하에 그러한 사명감은 없었다고 하는 차별성을 주지하고 있다.

이 외에 센고쿠기에서 전수된 사상으로 시바는 헤이안 시대(平安時代, 794-1185)말기에 있었던 겐페이 전쟁(源平合戰)에서부터 센고쿠 시대까지 약 400년간 내란을 겪어오면서 일본인들 사이에 형성된 승리에 대한 정의를 거론하고 있다. 시바는 승리의 정의로 정착된 사상이 메이지기 러일전쟁으로까지 수용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며 일본사의 대부분에 영향을 미친 일본적 무사사상이 시대를 뛰어넘어 이어져온다는 일본사상에 대한 우월주의를 나타내고 있다.

② 요시후루(好古)가 한 전범은 덴쇼(天正)3년(1575)인 그 옛날 오다 노부나가(織田信長)가 나가시노 전투(長篠合戰)에서 다케다(武田)의 기마대를 상대

19) 北影雄幸(2005) 『「坂の上の雲」の正しい読み方』, 光人社, p.342.

로 취했던 전법으로, 진지(陣地) 전진주의라는 점에서 요시후루가 필요해서 흉내 낸 것이었다고 해도 유럽적인 전법이였다. (三, 沙河, 382)

③ 일본인 승리의 정의는 겐페이 전쟁(源平合戰)에서 센고쿠 시대를 거쳐 계속 요지부동이였다. 옛말에 의하면 「적의 잔디를 밟는다.」라는 것으로 적지에 쳐들어가서 적의 본진에 이르면 승리자가 된다는 것이다. 노기군(乃木軍)은 그 때문에 전진했다. (五, 會戰, 316)

러일전쟁 시 일본기병을 육성한 아키야마 요시후루(秋山好古)²⁰⁾는 작품에서 ‘일본기병의 아버지’로 일컬어질 만큼 뛰어난 지략으로 당시 세계최강이라고 일컬어졌던 러시아 기병을 무너뜨린 인물로 표현되고 있다. ②의 인용문에서 인용하고 있는 나가시노(長篠)전투는 1575년 나가시노성에서 오다 노부나가(織田信長;1534-82)가 연합군과 함께 당시 최강이었던 다케다 가쓰요리(武田勝頼;1546-82)기마대를 상대로 행해진 전투를 말한다. 이때 노부나가는 최신 병기를 갖고 적진으로의 진입이라는 새로운 전법을 실행하여 다케다 군을 전멸시켰다. 이 전투는 일본의 중세 봉건시대를 마감한 것은 물론 동아시아의 역사도 바꾸게 된 일본역사 상 중요한 전투로 일컬어지고 있다. 후에 조선을 침략한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1536-98)가 노부나가의 전투방식을 그대로 사용하여 조선 북방군과 명나라의 정예 기마부대를 무너뜨리게 되자 일본인들 사이에는 승리에 대한 정의로 굳어져 메이지기까지 전수되었다는 내용이다. 러일전쟁 시 요시후루 또한 센고쿠 시대의 노부나가가 취했던 전법을 이용하여 적진으로 돌입하는 방식을 제시하였던 것이지만, 그대로의 답습이 아니라 유럽식으로 가미한 전법을 상황에 맞게 응용하였다는 의미로 시바는 요시후루의 능력을 표현하고 있다.

③의 인용문 또한 같은 내용으로 고대말기에 있었던 겐페이 전쟁에서부터 센고쿠 시대까지 걸쳐온 수많은 전투 속에서 형성되어진 적진으로 진격한다는 사상이 승리할 수 있는 정의로 정착되었다는 논리이다. 시바가 이 문장에서 주장하는 ‘적의 잔디를 밟는다’라는 진취 주의적 사상이 오랜 기간 동안 일본사회에서 고정된 관념으로 이어져왔다고 해도 요시후루가 그랬듯이 시대와 상황에 따라 약간의 변형이 필요한 법이다. 하지만 문장 뒷부분에서 노기 마레스케(乃木希典;1849-1912)가 이끄는 군부는 예로부터 거듭되어온 사상을 그대로 수

20) 아키야마 요시후루(秋山好古;1859-1930)를 말하며 아키야마 사네유키(秋山真之;1868-1918)와 함께 본고의 작품에 주인공으로 발탁된 인물이고, 마쓰야마(松山)에서 태어난 메이지기 군인이다. 요시후루는 근대화한 기병대를 이끌고 청일·러일전쟁에서 활약했다. 전후에는 작위를 거부하고 고향으로 내려가 중학교 교장이 되어 말년을 보냈다. 그의 동생 사네유키는 일본해전을 승리로 이끈 명참모이었지만 전후는 승려가 되려고 했다.

용하는 어리석음이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지적은 작품에서 노기군에 대한 비하로 계속해서 이어가지만, 시바는 오랜 기간 무사들에 의해 실행된 적의 진영을 돌격한다는 진취적인 용맹함이 있었기 때문에 대국인 러시아와의 전투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센고쿠기에 대한 언급은 앞서 에도기와 메이지기의 연속성뿐만 아니라 ①의 예문과 같이 메이지인의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나 사명감의 발로에 대해서도 묘사하고 있다. 그리고 ②,③에서는 다시 무사들에게 전수된 적진 추진주의 등을 설명하며 시대의 연속성을 각인시키고 있다. 즉, 에도기나 센고쿠기에서 수용된 합리적이고 진취적인 용맹함으로 결집된 전통 무사사상의 전수를 강조하며 메이지기의 역동성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4. 국민국가 메이지, 천황국가 쇼와

시바는 에도기와 센고쿠기의 정신적인 면이나 사상 등을 메이지기와 연결시키며 시대의 연관성에 대해 논하고 있으면서 쇼와기에 대한 언급도 가미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메이지군인의 사고방식과 쇼와군인의 사고방식에 대한 언설을 하고 있는데, 메이지군인은 ‘경험이 풍부한 사고력에 의해 자국을 객관시하는 능력과 비교하는 방법이 몸에 배어있다. 요컨대 뛰어난 에도기인이었다.’고 표현하며 메이지군인은 에도기의 사고방식을 지니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에 쇼와군인에 대해서는 ‘독일인과 같은 자기(자국)중심으로 독선적인 논리만이 선화하여 주변을 돌아보지 않았다’는 식의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²¹⁾. 본고의 작품에서도 메이지기와 쇼와기에 대해서 명백한 이분법적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데, 이런 시바사관에 대해 나카무라 마사노리는 단순한 ‘이항대립사관’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밝은 메이지’와 ‘어두운 쇼와’라는 이항 대립적인 파악으로 취급될 정도로 일본근현대사는 단순한 것이 아니라고 비평하고 있다. 나아가 이항대립적인 역사관에 속박되어 다이쇼기(大正期, 1912-26)에 대한 문장은 찾아볼 수 없고 조사해볼 생각도 하지 않았다고 하며 ‘다이쇼기의 결함’으로 이것이 시바사관이 갖는 하나의 특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²²⁾. 하지

21) 「明治の軍人には思考法に経験主義がたっぷり入っていたし、自国を客観視する能力も、また比較するやり方も身につけていた。要するに、かれらはすぐれた江戸時代人だった。これにひきかえ、昭和の高級軍人は、あたかもドイツ人に化つたかのような自己(自国)中心で、独楽のように論理だけが施回し、まわりに目をむけるということをしなかった。」 (司馬遼太郎(1995)『この国のかたち』(三), 文芸春秋, pp.27-28.)

22) 앞의 책, 中村政則(1997)『近現代史をどう見るか-司馬史観を問う』, p.34.

만 세키카와 나쓰오(関川夏央)는 시바가 러일전쟁 후 다이쇼기를 다루지 않았던 이유는 쇼와군인의 진취주의가 관료주의로 변모하여 인명경시 등이 이미 메이지 일부관료에게 축적되어 있었다고 보았기 때문에 메이지 다음시기인 다이쇼기는 쇼와기로 연관 지어 생각한 것이라고 반론하고 있다²³⁾. 이 논리는 전술했듯이 메이지중기 이후부터 계산적인 합리주의 사상인 개인주의나 개인 우선주의로 변질되었다고 하는 시바의 주장과도 일치한다. 그 때문에 본 작품에서도 아래의 인용문과 같이 메이지와 쇼와만으로 구분지어 자신의 역사관을 명확히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① 피해의식으로만 보는 것이 서민의 역사는 아니다. 메이지는 좋았다고 한다. 그 시대에 살아온 상인이나 농부, 교사 등의 대부분이 그렇게 말했던 것을 우리들은 소년시절에 들었다. (一, あとがき, 447)

② 러일전쟁을 축으로 일본인의 국민적 이성이 크게 후퇴하여 광기의 쇼와기로 들어섰다. 드디어 국가와 국민이 미치기 시작하여 태평양전쟁을 해치워 패전한 것은 러일전쟁 후 불과 40년 후의 일이다. (二, あとがき, 373)

위의 두 문장은 각각 단행본(文芸春秋, 1-6卷, 1969-72) 1권과 2권에 첨부되어있는 후기(あとがき)에서 서술한 글이다. 일본 메이지기는 서구화를 받아들여 급속하게 근대국가를 형성해갔던 시대로 국가는 사회의 어떤 계층을 막론하고 일정한 자격만 갖춘다면 등용하는 체제를 갖추었다. 근세의 엄격한 신분계급에서 해방된 서민들의 상승인 것이다. 이 ‘국가’라는 열려진 기관의 고마움을 사상가라든가 지식인들도 의심치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시바는 메이지를 밝은 시대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그 뒷면에는 무거운 세금이라든가 여공의 수난, 소작쟁의 등 어두운 면도 있었지만 이런 피해의식으로만 보는 것이 서민의 역사가 아니고 후세의 보편적인 생각 즉, ‘메이지는 좋았다’고 평가하는 것에서 역사는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①의 문장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이어서 메이지기의 사람들을 ‘낙천주의자’라고까지 표현하고 있다²⁴⁾.

그러나 ②의 인용문과 같이 러일전쟁을 기점으로 일본인의 국민적 이성(전

23) 関川夏央(2003/7)「昭和と平成 三たび「坂の上」に登る」『文芸春秋』, 文芸春秋, p.221.

24) 「이 긴 이야기는 일본사상 유례없는 행복한 낙천가들의 이야기이다.(중략) 낙천가들은 그와 같은 시대 인물로서의 체질로 앞만 보며 걸어간다. 올라가는 언덕 위의 푸른 하늘에 한 점의 하얀 구름이 빛나고 있다면 그것만을 바라보며 언덕을 오를 것이다. (このながい物語は、その日本史上類のない幸福な楽道家たちの物語である。(中略) 楽道家たちは、そのような時代人としての体質で、前をのみ見つめながらあるく。のぼってゆく坂の上の青い天にもし一朶の白い雲がかがやいているとすれば、それのみをみつめて坂をのぼってゆくであろう。)」(一, あとがき, 448-449)

술한 민족성과 충성심)이 크게 노후화되어 광란의 쇼와기로 들어서자 국가와 국민이 전부 미쳐버려서 결국에는 나라를 멸망시키는데 까지 이르렀다고 개탄하고 있다. 바로 러일전쟁 후 1931년 만주사변부터 1945년 패망할 때까지 일본이 행한 전쟁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듯 시바는 계속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메이지기와 쇼와기를 대립시켜 서술하는 이분법적 구조법으로 더욱 명확한 자신만의 역사관을 나타내고 있다.

③ 요시후루의 관찰로는 쇼와기의 일본 군인이 즐겨 말했던 정신력이나 충성심이라고 했던 추상적인 것은 전혀 말하지 않는다. 모두 객관적인 사실을 들어 군대의 물리성만을 논하고 있다. 이것이 요시후루 뿐만 아니라 메이지 일본인의 공통성이고, 쇼와기의 일본 군인이 적국과 자국의 군대능력을 판가름하고 있는 면에서 저울로도 잴 수 없는 충성심이나 정신력을 처음부터 일본이 절대적이라고 하며 크게 계산요소로 넣었던 것과는 전혀 다르다.

(二, 風雲, 318-319)

이 문장은 요시후루의 시점에서 서술되고 있는 내용으로 메이지 기에는 쇼와기 군인들에게 강요했던 충성심이나 정신력 등의 추상적인 말은 일체 사용하지 않았고 어떤 사실을 주입할 때는 모두 객관적인 사실만을 들어 군대를 이끌어 나갔다고 설명하고 있다. 나아가 시바의 논리는 이러한 사상이 요시후루와 메이지군인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당시 메이지인들의 공통점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반면에 쇼와기 군인들은 정신력이라든가 충성심이라는 추상적인 말만을 강조했다는 것으로, 리얼리즘의 국민국가라고 하는 메이지와는 상반된 논리를 제시하고 있다.

이어지는 다음의 인용문에서도 일본육군의 기본사상에 대해 묘사하면서 쇼와기에는 현실감이 뒤떨어진 노후화된 관료들로 이루어져 있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④ 러일전쟁에 있어서 일본육군은 포탄이 늘 모자랐고 기관총이라는 신무기를 거의 갖고 있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부족한 점이 있었지만, 그 외의 장비에서는 세계 제일의 육군이었다고 해도 좋다. 그 후 쇼와 20년에 이르기까지의 일본육군은 장비 상에서는 이류였고 그 이상으로 되었던 적이 없다.

(三, 沙河, 361)

⑤ 쇼와기에 농후한 형태로 성립한 ‘천황의 군대’라는 헌법적인 사상은 요시후루의 시대에는 단순히 수사적인 것으로 다분히 국민의 군대라고 생각하는 편이 짙었다.

(六, 雨の坂, 449)

본 작품은 역사소설이지만 전쟁이야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 이유를 시바는 작품 속에서 신흥국가시대인 메이지초기부터 30여년 후에 치러진 러일전쟁을 중심으로 일본과 일본인의 능력과 정신력을 밝혀나가는 것이 주제라면 주제라고 밝히고 있다²⁵⁾. 그렇기 때문에 위의 ④인용문과 같이 러일전쟁의 일본군과 그 후의 일본군의 기본사상에 대해 상대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것이다. 즉, 메이지 당시의 일본군에게는 물질적인 장비는 절대적으로 부족했지만, 군사지식이라든가 작전능력인 정신적인 면에서는 세계 제일의 육군이었다고 단정 짓고, 반면에 쇼와기 일본군에게는 물질적으로는 풍족했을지 모르나 정신적으로는 이류도 아닌 그 이하였다고 비난하며 두 시대의 국민의식에 대한 차별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 문장은 앞에서 언급한 에도기의 합리주의 사상이 유입된 메이지기와 쇼와기는 전혀 달랐다고 했던 내용과 일치되는 것으로 여기에서도 이분법적 서술로서 두 시대의 차별성을 확실하게 구분하고 있다.

이런 식의 대립문장은 ⑤의 인용문에서 쇼와기의 군대를 ‘천황의 군대’로 하고 주인공인 요시후루가 활약했던 메이지기의 군대는 ‘국민의 군대’라는 단적인 표현에서 시바의 역사관이 확실하게 드러난다. 이 내용은 바로 앞 문장에서 일본과 러시아 육군을 대립시켜 서술한 후 계속된 내용으로, 러시아는 모든 군대가 황제의 사유물이었기 때문에 전쟁에서 패배했을 때에는 국민은 상관없지만 황제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아가 전쟁패배로 황제의 권위가 떨어지면 급기야 혁명으로까지도 발전할 우려가 있다고도 하였다. 이와 반대로 메이지기의 군대는 인용문에서와 같이 국민과 국가가 함께한 ‘국민의 군대’이었지만, 그 이후 쇼와기에는 권력을 잡은 참모본부가 천황의 통수권을 남용하여 제국주의로 나아가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때의 군대는 러시아와 같은 ‘천황의 군대’라고 하며 쇼와시대를 비난하고 있는 것이다.

이 외에도 두 시대를 직, 간접적으로 대립시켜 서술하는 표현은 여러 곳에서 더 찾아볼 수 있고 작품전체를 봐도 메이지기와 쇼와기를 대립시키는 구도로 되어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마사노리는 시바의 이러한 이항대립적인 역사관에 대해 일본의 근현대사를 이해하기에 여러 약점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아오키 아키라는 시바가 메이지기와 달리 쇼와기를 비판한 것은 역사인식의 문제이기보다는 그 시대에 대한 반발심에서 생긴 심리상의 문제라고 거론하고 있다²⁶⁾.

25) 「이 원고는 전투묘사를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신흥국가시대 일본인의 어떤 종류의 능력이나 어떤 종류의 정신 상태에 대해 두서없이 생각해가는 것이 말하자면 주제라면 주제라고 할 수 있다.(この稿は、戦闘描写をするのが目的ではなく、新興国家時代の日本人のある種の能力もしくはある種の精神の状態について、そぞろながらも考えてゆくのが、いわば主題といえば主題といえる。)」(四, 黒溝台, 488)

26) 앞의 책, 青木彰(2005) 『司馬遼太郎と三つの戦争』, p.113.

이와 같이 시바가 메이지를 쇼와기와 대립시켜 선과 악으로 서술하고 있는 것은 통상 쇼와기를 비정상적인 내셔널리즘이라고 인식되는 것에 반하여, 메이지는 정상적인 내셔널리즘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즉, 패전국가인 일본을 전통적 무사정신에 지배받던 시대의 장점을 부각시켜서 일본·일본인의 우월감을 인식시키기 위한 의도였다고 봐야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③-⑤의 문장과 같이 메이지인의 사고방식을 쇼와기와 비교하는 구체적인 서술법으로 자신의 주관을 확실하게 밝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5. 국민국가관에서 평화관으로

이상과 같이 시바는 각 시대별로 자신이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에서 그의 특이적인 이분법적 서술법으로 확고한 메이지 국가론을 제시하고 있다. 그밖에도 이러한 서술법으로 묘사되고 있는 문장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청일전쟁을 청불전쟁과 비교하거나 러일전쟁을 크림전쟁과 비교하는 문장에서 일본이 청국과 러시아와 전쟁을 할 수 밖에 없었던 당위성에 대해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작품 후반부에는 전쟁과 동맹을 비난하는 글도 첨가하고 있으므로 한층 다양한 시바사관을 확인할 수 있다.

시바는 작품에서 메이지기의 청일·러일전쟁을 조국방위전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런 자신의 주장을 객관화시키기 위해서 비슷한 성격의 다른 전쟁을 첨가하며 내셔널리즘적인 역사관을 보이고 있다. 즉, 청일전쟁(1894)은 청불전쟁(1884)과 대비시키며 같은 청국과의 전투이지만 성격상 차이점이 있었다고 하는 점과, 러일전쟁(1904)은 크림전쟁(1853)과 비교하며 러시아의 남하정책이라는 원인은 같았지만 그 대처하는 힘의 원천은 달랐다고 하는 점에 중점을 두어 전쟁의 본질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① 청국이 베트남의 종주권을 주장하고 이 나라를 식민지로 하려고 했던 프랑스와 분쟁한 결과, 청불전쟁이 일어났고 프랑스해군은 청국 푸젠함대를 전멸시켰고 육군에서도 청국은 연전연패했다. 메이지17년의 일이다. (중략)

일본은 보다 절실했다. 절실한 것은 조선의 일이다. 조선을 영유하려고 했다가보다 조선을 다른 열강에게 빼앗길 경우 일본의 방위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중략) 어쨌든 이 전쟁은 청국과 조선을 영유하려고 일으킨 것이 아니고 다분히 수동적이었다. (一, 日清戰爭, 342-343)

② 크림전쟁은 러시아의 영구(永久)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남하팽창정책이

한편으로는 극동으로 향하고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터키에 대한 침략 쪽이 더 열강을 자극해서 일어났다. 이 점에서 러시아 남하팽창정책에서 일어난 러일전쟁과 그 본질은 닮아있다. 단지 터키제국은 이미 노화되었기 때문에 러시아군의 석권에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만은 약간 다르다. (四, 水師營, 293)

①의 청불전쟁은 중불전쟁이라고도 하며 1884년 8월에서 1885년 4월까지 베트남 북부의 톱킹(Tongking)을 프랑스가 차지하기 위하여 일으킨 전쟁이다. 프랑스가 베트남을 식민지로 만들고 군대를 주둔시키자 이에 청나라가 반대하여 전투가 시작되었지만, 결국 프랑스에게 대패했다. 이에 반해 청일전쟁은 단순히 일본의 방위를 위해서 청국에 대해 수동적으로 일어난 전투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즉, 프랑스나 청국이 베트남을 식민지로 하기 위하여 일어났던 청불전쟁과는 달리 세계열강들로부터 잠식해 들어오는 식민지화에 대비하여 자국의 보호를 위해서 청국에 대항하여 싸웠다는 것으로 청일전쟁은 말하자면 식민지전쟁이 아니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②의 크림전쟁 또한 청일전쟁이 일어났던 시기인 1853년에 발생했던 것으로 이 전쟁을 러일전쟁과 비교한 것은 서로 러시아가 관련되어있기 때문이다. 시바는 크림전쟁과 러일전쟁은 러시아의 남하정책으로 인한 침략전쟁이라는 성질은 서로 닮아있었다고 하지만 터키가 러시아의 침략을 받았던 것은 내부 결속력이 약한 민족으로 이미 노화되어있었기 때문이라고 결론짓고 있다. 반면에 러일전쟁에서의 일본은 터키와 달리 국민국가라는 의식 속에 있었기 때문에 외부침략에 대처하는 힘이 보다 강했다는 것을 내세우고 있다. 시바는 이처럼 두 전쟁을 다루면서 계속해서 메이지기 일본은 국민국가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 이전시기에는 막번 체제(幕藩体制)하에서 민중들은 직접통치자인 번(藩)을 국(国)으로 의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대적인 국가체제와는 전혀 달랐다. 따라서 국민들이 ‘국가’라는 의식을 하게 된 메이지기이야말로 진정한 국민국가였기 때문에 신생국이라고 했고 흉노족의 일원인 터키와는 근본적으로 달랐기 때문에 두 전쟁에서 터키와 일본이 전쟁에 임했던 적극성에는 큰 차이가 있었다고 하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시바는 다른 시점에서 러시아가 점령한 폴란드와의 관계를 설명하며 앞서 청일·러일전쟁을 지정학적인 관점에서 자국을 지키기 위한 방위전쟁이라고 주장했던 것과는 상이한 표현으로 서술하고 있다.

③ 역사시대에 있어서 러시아와 폴란드의 관계는 일본과 조선의 관계와 다소 비슷하다.

오랜 옛날 일본은 조선을 통하여 대륙문화를 수용했다. 조선이 일본의 스승

이었지만 아주 훗날 한 발 먼저 근대화된 일본이 조선을 예속하려고 했으며 실제로 이 러일 전쟁 후 한일합방이라는 것을 해치움으로써 양국관계에 비참한 역사를 만들었다. (五, 大謀報, 105)

④ 전쟁이라는 것은 국가가 자행하는 피투성이의 도박이라고 본다면, 장군이라는 것은 그 도박을 대행하는 피의 승부사이기않으면 안 된다. (五, 乃木軍の北進, 162)

③의 인용문에서 러시아와 폴란드의 관계와 일본과 조선과의 관계가 역사적으로 닮아있었다고 하는 표현은 국가가 무력적으로 강압당한 상태를 의미한다. 폴란드는 1795년에 프로이센, 러시아, 오스트리아의 침략을 받아 1918년까지 3국의 지배를 받았던 나라이다. 1830년에는 독립을 위한 혁명 정부를 조직하여 봉기하였으나 투쟁은 실패했다. 이후 1차 세계 대전 중 월슨 대통령이 제창한 민족자결주의 원칙에 따라 1918년 독립하였다. 시바는 러일전쟁을 묘사하기 위하여 러시아에 대한 방대한 자료를 조사하던 중에 러시아에게 핍박받았던 속국에 대해 인지했다. 그 중에서 러시아와 폴란드의 관계를 언급하며 ‘러시아국가가 얼마나 폴란드인에게 잔인하고, 폴란드인이 얼마나 러시아국가에게 공포를 느꼈는지는 그 민족의 처지가 되어보지 않고서는 모른다.’²⁷⁾는 언설로 폴란드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그리고 러일전쟁 후 일본의 속국으로 되었던 조선과의 관계를 대입시키면서 폴란드와 조선의 입장이 동등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고대로부터 조선을 통해 문화가 수용되었던 역사적 관계를 연상시키며 러일전쟁 후 조선을 향한 일본국의 행태에 대해 위와 같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시바의 이러한 표현은 러일전쟁 당시 러시아제국과 러일전쟁 후의 일본제국과의 유사성에 문제의식을 갖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어지는 ④의 문장에서 전쟁을 국가가 자행하는 피투성이 도박이라고 묘사한 것으로 전쟁을 혐오하는 시바사관의 변화를 읽을 수 있다. 이런 시바의 역사관에 대해 다카하시 세이이치로(高橋誠一郎)는 본고의 작품 전반부에는 군사력 증강과 병기에찬을 하고 있었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전쟁의 야만성과 근대병기의 파괴력을 내세우면서 ‘전쟁’을 비현실, ‘평화’는 현실이라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아가 시바사관은 『언덕위의 구름』에 의해서 ‘평화관’의 현대적인 의미를 밝히고 있다고 덧붙이고 있다²⁸⁾.

또한 시바는 러일전쟁에 앞서 영국과 맺은 영일동맹(1902)에 대해서도 아래

27) 「ロシア国家がいかにポーランド人に残忍であり、ポーランド人がいかにロシア国家に恐怖を感じているかは、その民族の身になってみないとわからない。」(五, 大謀報, 112)

28) 高橋誠一郎(2005) 『司馬遼太郎の平和観』, 東海教育研究所, pp.24-25.

의 인용문과 같이 러불동맹(1891)과 비교하면서 영국과 프랑스가 각각 자국의 이득을 위해서 맺었던 동맹이라는 의미로 군사동맹을 비하하고 있다. 하지만 영국은 일본과 맺었기 때문에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었고 프랑스는 러시아와 맺었기 때문에 그 욕구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의도로 인용하며 일본국의 능력을 과시하고 있다. 그러나 영국이 식민지로 삼았던 보어인(Boer)에 대한 만행을 서술하면서도 영국과 맺은 군사동맹으로 결국은 일본도 영국과 같이 조선에 대해 같은 만행을 저질렀다는 회의감을 표명하고 있다.

⑤ 영국은 마침내 보어인의 전인구와 거의 맞먹는 45만이라는 대군을 동원하여 보어인을 모두 말살하는 작전을 벌여, 가옥을 불태우고 토지를 초토화하여 영국의 제정이 바다날 정도가 되어서야 간신히 조건부 승리를 할 수 있었다. (五, 乃木軍の北進, 153)

⑥ 원래 영국은 당연한 것이지만 일본을 좋아해서 영일동맹을 맺었던 것은 아니다. (중략) 영국에 있어서 일본의 존망 등은 어떻든 간에 러시아라는 돌진해오는 기관차에 맞서서 커다란 돌로 그 앞에다 던져버리는 기능적 존재로서 일본을 보고 그 때문에 일본을 선택한 것에 지나지 않다. (중략)

이 동맹(러불동맹)은 프랑스정부가 국민에게는 비밀로 하여 맺은 것으로 제정 러시아의 폭정을 혐오한 프랑스의 지식인층에게는 전혀 지지를 받지 못했다. (중략) 프랑스공화국의 숙적은 독일제국이고 그 독일은 견제하기 위해 프랑스는 강대한 러시아육군에 기대했던 것이다. (六, 退却, 66-68)

⑤의 인용문은 영국의 실체를 설명하기 위하여 제시한 것으로서 영일동맹에 앞서 문명국으로서의 행태를 묘사하고 있는 내용이다. 보어인이란 17세기 네덜란드에서 남아프리카로 이주하여 케이프(cape, 천이나 모피로 만든 소매가 없는 외투의 총칭) 식민지라는 농업사회를 만든 사람들로 아프리카칸스라고 자칭하면서 강한 백인의식과 종교심의 연대의식을 갖고 있었던 민족이다. 영국이 이 민족의 지배권을 확립하기 위하여 1899년 보어전쟁(Boer War)을 일으켰고 보어인은 힘없이 점령당하여 식민지로 전락하였다. 영국의 이러한 세력확장 끝에 러시아의 남하정책을 견제하기 위하여 일본과 맺은 군사동맹을 시바는 비슷한 시기에 있었던 러불동맹과 비교하며 러시아와 영국의 이득권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문장에 대해 다카하시 세이이치로는 ‘시바는 발칸반도의 패권을 둘러싸고 격렬하게 싸웠던 크림전쟁과 청불전쟁의 유사성을 언급하면서, 청일·러일전쟁의 원인을 지정학적 문제로 보았지만, 러일전쟁을 조사하는 가운데 러시아제국과 폴란드와의 관계와 일본제국과 조선의 관계가 유사하다

는 것을 발견하여 대국에 종속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했던 반도국가관이 변했던 것이다'라고 평하고 있다. 또한 영일동맹의 글에 대해서도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영국이 일본과 동맹을 맺음으로서 야만국인 러시아를 파괴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강하게 비평했던 시바는, 후에 도쿠토미 룯카(徳富蘆花;1868-1927)가 쓴 「승리자의 비애(勝利者の悲哀)」(1952)라는 논문을 읽고 룯카가 전쟁이라는 수단과 군사동맹을 심하게 비판했듯이 '문명국'과의 '군사동맹'의 위험성을 인식하게 되었던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²⁹⁾.

이와 같이 시바는 ①,②의 인용문처럼 청일·러일전쟁을 비슷한 시기에 있었던 다른 전쟁과 비교한다거나, ⑥의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맺었던 영일동맹을 비슷한 성격의 동맹과 대비시키며 서술하는 문장으로 국민국가로서 메이지의 역량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강대국이 약소국에게 가했던 만행 등을 서술하면서 일본 또한 영국과의 군사동맹으로 이들의 행위를 답습하게 되어 제국주의의 길로 나서게 되었다는 비판적인 언설을 하고 있다. 더구나 ③-⑤의 문장에서는 지정학적인 위치에서 조선과 일본의 관계를 주장했던 것과는 반대로 전쟁으로 인하여 서로 잘못된 관계가 되었다는 회의감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시바는 본 작품이 종결된 후 자신의 군대체험을 내세우며 일본이라는 나라는 전쟁이라는 것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평범한 인식을 갖게 되었다고 토로하고 있다³⁰⁾. 이러한 논리는 앞서 국민국가로서 메이지기의 전쟁을 정당화했던 역사관이 반전주의 사상과 평화주의 역사관으로 변모되어 가는 것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6. 맺음말

시바의 문학작품에서 쇼와기에 대한 비판적인 발언은 성장기의 전쟁체험에서 비롯된 시대의 반발심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쇼와기 이전시대인 메이지기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긍정적이다. 그 이유를 시바는 메이지 전시기인 에도

29) 「バルカン半島の覇権をめぐる激しく戦われたクリミア戦争や、ベトナムでの覇権を争ったフランスと清国との戦争との類似性に言及しつつ、日清・日露戦争の原因を「朝鮮半島という地理的存在にある」としていた司馬は、日露戦争を詳しく調べる中でロシア帝国とポーランドとの関係と、「日本帝国」と朝鮮の関係の類似性にも気づくようになり、「大国」に従属するのが当然としていた「半島国家」観が変わるのです。」、「そして日本が当時の超大国イギリスと同盟を結ぶことで「野蛮な」ロシア帝国を破ろうとしたことを高く評価していた司馬は、戦争後にトルストイのもとを訪れた徳富蘆花が、「勝利の悲哀」という論文で戦争という手段や軍事同盟を厳しく批判したように、「文明国」との「軍事同盟」の危険性をも認識するようになるのです。」

(앞의 책, 高橋誠一郎(2005)『司馬遼太郎の平和観』, pp.20-21.)

30) 앞의 책, 司馬遼太郎(1980)『歴史と視点』, pp.23-24.

기나 센고쿠기에서 전수된 일본적 사상에서 찾고 있다.

시바의 중기작품 『언덕위의 구름』에는 근대초기의 청일·러일전쟁을 시대적 배경으로 메이지의 역동성에 대해 그의 문체론적 특징 중의 하나인 이분법적 서술법으로 명확하게 표현되고 있다. 즉, 메이지기를 중심으로 전시대의 연속성과 이후시대의 차별성을 구체적으로 서술하면서 메이지기가 국민국가라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 작품을 중심으로 메이지기와 전후시대를 비교 또는 대립시키면서 서술되고 있는 문장을 통하여 시바가 의도하고 있는 메이지 국가론에 대해 살펴보았다.

작품전체적으로는 메이지기와 쇼와기의 대립구도로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시바는 일본 전통적으로 승계된 사상 등 민족성에 대하여 서술하며 시대의 연속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 중에서 메이지기 바로 이전 시대인 에도 기나 센고쿠 기에 형성되었던 합리주의나 진취주의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사상이 메이지기로 유입되어서 근대초기의 국가라는 의식 속에서 애국심이나 충성심으로 발전하여 국민국가가 형성될 수 있었다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하지만, 러일전쟁의 승리를 기점으로 일본 고유의 정신이 과잉되어 쇼와기에는 제국주의로 나아가게 되었고, 결국에는 패망으로까지 몰고 갔다고 하는 차별성을 주지하며 국민국가로서 메이지의 역량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시바는 메이지기의 청일·러일전쟁을 비슷한 시기에 일어났던 다른 전쟁과 비교하면서 전쟁의 정당성이나 당위성을 주장하는 내셔널리즘적인 역사관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다른 시점으로는 일본과 맺었던 영국과의 군사동맹을 타 동맹과 비교하면서 러시아나 영국 등 강대국의 행태를 지적하고 있다. 나아가 조선과 일본과의 관계를 타 국가와 비교하는 문장을 통해서 메이지기의 전쟁을 정당화했던 역사관이 전쟁의 폐해를 직시하는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즉, 청일·러일전쟁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메이지의 국민국가관을 내세웠던 자국중심의 시바사관이 전쟁과 군사동맹을 비판하는 서술법에서는 세계사적 시점에서 일본을 바라보는 비교문명학적인 역사관으로 변모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시바는 근대초기의 두 전쟁을 통해서 메이지가 국민국가가 될 수 있었던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전쟁을 혐오하고 부정하는 반전주의의 평화관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이러한 서술법으로 인해 시바사관이 단순화되고 있지 않다는 면을 확인할 수 있다.

【參考文獻】

- 福井雄三(2008) 『司馬遼太郎の意外な歴史眼』, 主婦の友社, p.53.
- 青木彰(2005) 『司馬遼太郎と三つの戦争』, 朝日新聞社, pp.113,130-131.
- 高橋誠一郎(2005) 『司馬遼太郎の平和観』, 東海教育研究所, pp.20-21,24-25.
- 北影雄幸(2005) 『「坂の上の雲」の正しい読み方』, 光人社, p.342.
- 司馬遼太郎(2005) 『坂の上の雲』(一)~(六), (株)文芸春秋(新装版).
- 関川夏央(2003/7) 「昭和と平成 三たび「坂の上」に登る」 『文芸春秋』, 文芸春秋, p.221.
- 成田龍一(2003) 『司馬遼太郎の幕末・明治』, 朝日新聞社, p.308.
- 司馬遼太郎(1997) 『この国のかたち』(四), 文芸春秋, pp.135-136.
- 中村政則(1997) 『近現代史をどう見るか-司馬史観を問う』, 岩波書店, pp.6,34.
- 中村政則(1997/9) 「歴史家は司馬史観をどう見るか」 『戦争責任研究』, 日本の戦争責任資料センター, p.4.
- 司馬遼太郎(1995) 『この国のかたち』(三), 文芸春秋, pp.27-28.
- _____ (1994) 『明治という国家』(上), 日本放送出版協会, pp7-8.
- _____ (1994) 『明治という国家』(下), 日本放送出版協会, p.117.
- _____ (1993) 『この国のかたち』(二), 文芸春秋, pp.114-115,129.
- _____ (1993) 『この国のかたち』(一), 文芸春秋, pp.31-33.
- _____ (1980) 『歴史と視点』, 新潮文庫, pp.19-21,23-24.
- 重松泰雄(1975/3) 「司馬遼太郎における<明治>」 『国文学 解析と教材の研究』, 学灯社, p.158.

要 旨

本稿は、司馬遼太郎の中期作品である『坂の上の雲』の歴史叙述記法を中心に、明治の国家論について考察したものである。司馬の文学作品には、昭和期に関する発言が極めて批判的に叙述されている反面、明治期についてはかなり肯定的である。この作品また明治期を中心にして、それ以前の江戸期と戦国期の連続性と、昭和期の差別性に周知しながら、明治期が国民国家であったことを論じている。すなわち、江戸期に官学として位置していた朱子学の影響で発達した合理主義思想と、戦国期の歴代から受容された進取主義で勇猛な武士思想が、明治期へと受け継がれ、固有な日本の思想として結集して国民国家を形成した点を強調している。しかし、昭和期にはこの思想が自己中心的で非合理的な思想へと変っていき、帝国主義国家に進んだと指摘している。このように、司馬は時代の連続性と差別性を具体的に述べながら、明治期が国民国家となり得た民族性に対して明確な歴史観を示している。さらに、戦争と軍事同盟を他国と比較する文章を通じては、近代初期、日清・日露戦争の正当性を主張しながら国民国家観を掲げた自国中心の歴史観を世界史的な視点から批判するなど、比較文明学的な歴史観を見せている。従って、司馬の特徴的な二分法的叙述法によって表われている歴史観は単純化されていないといえる。

キーワード：歴史叙述記法、明治期、昭和期、合理主義、進取主義、国民国家観

투 고 : 2010. 2. 28
1차 심사 : 2010. 3. 13
2차 심사 : 2010. 3. 27